

이슈 브리핑

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EV) Honda, 전기 미니밴 'N-VAN e' 10월 출시
- (EV) 美 내 전기차 신차 가격, 내연기관 수준으로 하락 중
- (항공) Fokker, 다양한 연료 활용 가능한 항공기 개발 추진

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자율주행) Suzuki-Tire IV, 경차용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협력
- (반도체) 대반 반도체 기업들, 차량용 반도체 부문 입지 확대
- (ADAS) Xiaomi, '25년까지 ADAS 개발자 2배 증원 계획

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Mahle) 유럽 내연기관 규제에 대한 대응
- (Denso)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 생산체제 구축
- (BASF-WHW) 배터리 셀 폐기물 재활용 협약 체결

친환경차 / 탄소중립

◆ (EV) Honda, 전기 미니밴 'N-VAN e' 10월 출시

- 보도자료에 따르면 Honda는 '24.10.10 'N-VAN'의 전기차 버전인 'N-VAN e'의 일본 내 판매를 개시할 예정으로, 가격은 ¥2,439,800(약 2,135만원)*부터 시작
- * e:G 모델 가격
- 이번 차량은 최대 245km 주행이 가능하며(WLTC 기준), 다양한 고객층을 위해 4인승 L4-FUN과 1인승 G, 2인승 L2 등 4가지 트림으로 구성
- * 기본형 L4, 레저형 FUN과 상용 G 및 L2로 구분되며 L2의 경우 운전석 뒤에 좌석을 배치한 탠덤 구조
- ※ Honda('24.6.13.) <https://global.honda/en/newsroom/news/2024/4240613eng-n-van-e.html>

◆ (EV) 美 내 전기차 신차 가격, 내연기관 수준으로 하락 중

- 차량 평가·연구 기업 Kelley Blue Book에 따르면 '24년 1분기 美 내 전기차 신차 평균 거래가는 \$55,167(약 7,628만원)로 전년 동기 대비 9% 감소했는데, Hyundai·Kia·Tesla 등이 내연기관 인기 모델보다 저렴한 차량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 일부 주요
- 특히 리스에서 해당 차종의 가격 메리트는 더욱 부각되는데, 가령 IONIQ 6의 리스 비용은 월 \$243(약 34만원)으로 Toyota Camry(\$346, 약 48만원)보다 42% 가량 저렴
- * 한편 Bloomberg에 따르면 주행거리 300마일 이상의 전기차중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은 IONIQ 6인데, 판매가 \$42,500(약 5,877만원, SE모델 기준)로 '24.1월 美 전체 신차 평균 판매가(\$47,338(약 6,546만원))보다 저렴
- ※ Electrive('24.6.7.) <https://electrek.co/2024/06/07/hyundai-tesla-drive-down-long-range-ev-prices-below-gas-cars/>

◆ (항공) Fokker, 다양한 연료 활용 가능한 항공기 개발 추진

- 네덜란드 Fokker Next Gen은 액화수소(연소)와 지속가능한 항공유(SAF), 그리고 기존 항공 연료 등 다양한 연료로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 개발 계획 공개
- * Fokker는 이번 항공기의 운영비용이 기존 항공기와 비교가능한 수준으로 즉시 운항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
- 이번 항공기는 최대 150명이 탑승 가능하며 최대 운항거리는 2,590km로, '35년 취항 목표
- * 관련하여 Fokker는 '24.5월 라트비아 항공사 Air Baltic과 수소 기반 항공기 개발 관련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
- ※ H2-View('24.5.31.) <https://www.h2-view.com/story/dutch-company-unveils-liquid-hydrogen-aircraft-plans/2110634.article/>

◆ (자율주행) Suzuki-Tire IV, 경차용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협력

- 농촌지역의 좁은 도로와 언덕에 적합하도록 Tier VI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선하고, 기출시된 Suzuki의 경차*에 탑재하여, 지역 모빌리티 솔루션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

* 日 경차는 규격 3400*1480*2000mm 이하, 배기량 660cc 이하이며, 낮은 세금 보험료로 신차 판매의 40% 차지
 ** '24.6.16. Suzuki는 Tier IV의 701억 유상증자에 참여

- '24.3.31. 회계 마감 기준 Suzuki의 연구개발비용은 2.51억원인데, Honda 8.45조원, Nissan 5.41조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,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Nikkei Asia는 평가

※ Nikkei Asia('24.6.17.) <https://asia.nikkei.com/Business/Automobiles/Suzuki-to-develop-self-driving-minicars-by-teaming-with-startup>

◆ (반도체) 대만 반도체 기업들, 차량용 반도체 부문 입지 확대

- EV 생산의 증가로 인해 차량용 MOSFET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, 대만 전력 IC 기업들이 자동차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**하고 있음

* Panjit International, Taiwan Semiconductor, Eris Technology, Actron Technology, Sinopower Semiconductor, Advanced Power Electronics Corp(APEC)

** Panjit: 자동차 제품 매출 비중 '23년 22%→'24.5월 30%, 60V-100V-150V MOSFET에 AEC-Q101 인증 획득, Taiwan Semiconductor: UMC와 공동 개발한 60V MOSFET을 독일 완성차사에 공급, 80V-100V MOSFET 출시 예정

- Digitimes는 지정학적 갈등과 가격 인하 상황*에서도, 대만 전력 IC 기업들은 유망한 EV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품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

* 해당 언론사는 중국산 차량에 대한 미국-EU의 높은 관세율로 인한 비용을 중국 완성차사가 공급업체에 전가할지 주목되며, 관계자들에 의하면 BYD는 공급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고 보도

※ Digitimes('24.6.14.) <https://www.digitimes.com/news/a20240613PD215/taiwan-power-ic-auto-components-mosfet-china.html>

◆ (ADAS) Xiaomi, '25년까지 ADAS 개발자 2배 증원 계획

- '24.3월 EV를 첫 출시한 Xiaomi*는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'25년까지 ADAS 개발자 인력을 기존 1,000명에서 1,000명을 추가할 계획

* 첫 출시한 EV 'SU7'는 8.8만대를 주문받았으며('24.4.30. 기준), ADAS 분야에 8,924억원 투자 계획임

- 동사는 스마트폰, 기타 비즈니스에서 구축한 AI 기술을 활용해 ADAS 업그레이드 예정

* 현재 Xiaomi의 ADAS는 Lv.2 수준으로, 'SU7'은 고속도로에서 가속, 감속, 차선 변경이 가능

※ Nikkei Asia('24.6.12.) <https://asia.nikkei.com/Business/Automobiles/Electric-vehicles/Xiaomi-to-double-EV-driver-assistance-developers-by-2025>

◆ (Mahle) 유럽 내연기관 규제에 대한 대응

- Mahle CEO Arnd Franz는 유럽의 내연기관 규제* 비판과 동시에 CO2 배출량 감축의 가속화를 위한 수단으로 개선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할

* '23.3월 EU는 '30년까지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% 줄이기 위한 탄소 감축 입법 패키지 'Fit for 55'를 통해, '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(합성연료(E-Fuel) 사용 내연기관차 예외)을 최종 승인함

- 이에 따라 동사는 '2030 전략 계획'의 일환으로 ①전동화, ①열 관리, ③지속 가능한 연소 엔진 조직을 구성해, 내연기관 규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

※ Automotive News('24.6.17.) <https://www.autonews.com/executives/mahle-ceo-amd-franz-sees-ongoing-need-combustion-engines>

◆ (Denso)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 생산체제 구축

- Denso는 '35년까지 금속 3D 프린터*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, 품질 안정화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연관 기업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음**

* 아직까지는 품질 관리 및 장비 도입의 어려움으로 자동차 부품 양산이 어렵지만, 금형의 보관-제작 비용 절감, 특수 형상 제조, 부품 경량화와 강도 유지 가능, 높은 생산 유연성이 장점임

** '21년부터 Denso는 자체 제작 분석 장비로 3D 프린터 제작 부품을 품질 검증하고 있으며,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기술을 Toyota 그룹 계열사, 부품 제조사, 3D 프린터 제조사 등과 공유

- 동사는 3D 프린팅 기술로 수리용 부품* 소량 생산부터 시작해 점차 생산량이 많은 부품으로 사용을 확대할 계획

* 단종 차량 부품 등 소량 수요에도 불구하고 금형 장기 보관 등 비용 부담이 큰 영역임

※ Nikkei Mobility('24.6.12.) <https://www.nikkei.com/prime/mobility/article/DGXZQOFD21A1H0R20C24A5000000>

◆ (BASF-WHW) 배터리 셀 폐기물 재활용 협약 체결

- 독일 배터리 소재 및 재활용 기업 BASF와 WHW Recycling*은 유럽 내 지속 가능한 배터리 셀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, 양극박·음극박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협약을 체결함

* 독일 폐기물 처리업체 Walch Holding과 슬로바키아 폐기물 관리업체 Fecupral의 소유주 Štefan Hanigovský의 합작사로, 전극박 재활용 전문기업임

- '24년 말부터 WHW Recycling가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 공정 폐기물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분리*하고, BASF가 분리된 양극활물질의 불순물을 정제해, 다시 배터리 생산 원료로 재사용할 계획

* 독일 바우덴바흐에 위치한 WHW Recycling의 신규 분리 공장 2곳에서 실시

※ Basf('24.6.18.) <https://www.basf.com/global/en/media/news-releases/2024/06/p-24-223.html>